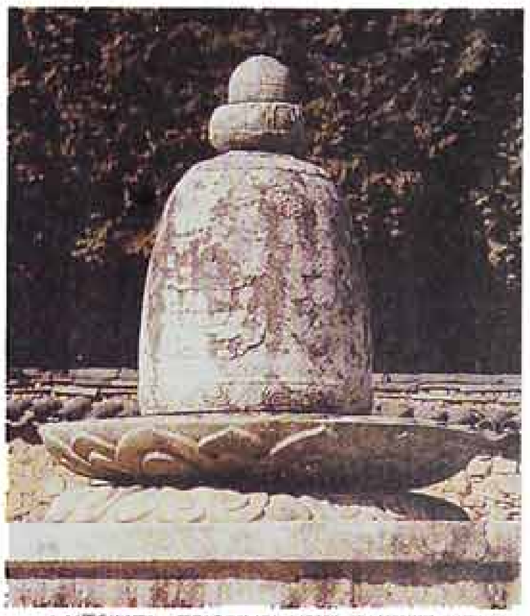
시방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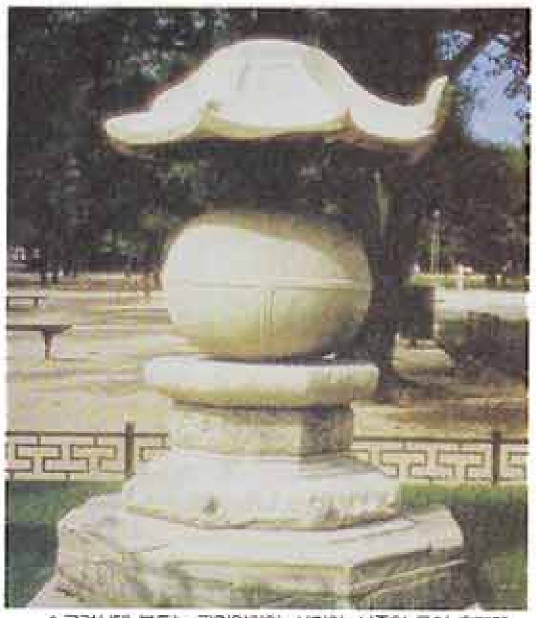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인터넷 전자신문 현대불교 http://news.buddhapia.com

◇팔각원당형 부도의 시조 염거화상탑(국보 104호). 신라 문성왕 6년(844년) 조성. 서울 경복궁 뜰에 있다.

◇섬세하고 정교한 문양으로 한층 화려해진 부도. 통일신라 시기 쌍봉사 철감선사탑(국보 57호)이 대표적이다.


◇석종형부도는 고려초기부터 성행해 조선조까지 이른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통도사 금강계단 위의 석종형 부도. 고려 선종조에 제작됐다고 추정된다.


◇고려시대 부도는 팔각원당형, 사각형, 석종형 등이 혼재돼 있다. 고려 중기 만들어진 홍법국사실상탑(국보 102호)은 둥그란 탑신부와 옥개석 밑면의 비천상조각이 눈여겨볼 부분이다.

부도

'수행의 결정'과 '불교조각'의 어우러짐

生과 死의 가르침 담겼다

건축·조각·회화 등 종합예술의 극치
'산은 산 물은 물' 圓에 담은 성철스님 부도

◇특별한 양식없이 전대에 대한 모방으로 이어진 조선시대 부도 가운데 회암사지부도(보물 388호)는 탑신부와 기단석에 새겨진 운룡무늬가 화려하다.

우주 삼라만상을 하나로 응축시킨 진리를 상징하는 원. 그 원을 받들며 무한성을 나타내는 두 개의 등을 맞댄 반구. 성철스님의 부도는 이렇게 형상화되어 열반5주기에 맞춰 8일 해인사에 모셔졌다. 고승들의 사리를 봉안한 부도는 팔각, 사각, 종형 등이 대다수인데 스님의 검소했던 삶을 대변이라도 하는 듯 간결함과 절제의 미가 돋보인다. '산은 산 물은 물'의 가르침을 원(圓)에 담은 성철스님의 부도는 여느 부도와도 다른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표출해내고 있다.

스님의 부도가 위치한 일주문에서 1백여m 떨어진 곳에는 해인사를 거쳤던 고승들의 부도와 탑비 20여기가 모여있는 비석거리가 있다. 각양각색의 고아한 자태를 뽐내는 부도들은 역사 속의 변천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성철스님의 부도와는 뚜렷한 대비를 보인다.

사찰에 들어서면 자그마한 항아리모양 부도에서부터 화려한 장엄이 눈부신 탑형 부도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옛 고승들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부도밭이다. 부도밭에 앞서거나 뒤서거나 서있는 부도에는 대개 탑비도 건립되어 있어 스님의 행장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 문화상까지 생생하게 알 수 있다. 건축·조각·회화 등을 종합한 예술의 극치인 부도는 전체적으로 균정한 조형미와 표면 장식의 정교한 조각 등이 뛰어나 석조미술 가운데 당당한 하나의 주류를 이루며 당시의 문화적 양식까지 알려주고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경전상에 나타난 최초의 사리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한 8개의 탑이다. 기원전 3세기에 조성된 인도의 산치대탑은 나중에 석종형 부도의 모태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교 전래 초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부도는 선종 전래 이래 선사의 사리 존숭을 계기로 유행처럼 번져나간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부도는 원광법사 혜숙스님의 부도이고 백제는 혜현스님의 부도로 나타나는데 두 부도 모두 7세기경 건립된 것으로 아쉽게도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현존하는 부도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도의선사 부도로 추정되는 진전사지 부도(보물 439호)로 사각기단 위에 팔각형 탑신이 어우러져 있다. 건립연대가 확실한 최고(最古)의 부도는 문성왕 6년(844)에 건립된 염거화상탑(국보 104호)으로 팔각원당형 부도의 시조로 일컬어진다.

9세기에 이르면 팔각원당형 부도들이 선보이고 고려시대부터 석종형이 뒤를 이어 유행한다. 신라말기부터 고려시대에 걸쳐 조성된 부도에는 운룡무늬가 새겨진 것들이 많고 사천왕 가릉빈가 연화 비천상 등의 유려한 조각들이 화려함을 한층 더한다.

우리나라 전시대를 통하여 가장 수려한 부도로 알려져 있는 쌍봉사 철감선사탑(국보 57호)에는 곧 날아갈 듯한 비천상과 가릉빈가의 모습이 생생하게 새겨져 있다. 연곡사 동부도(국보 53호)는 정교한 조각이 일품인데 중대석의 팔부신중 조각은 불법 수호의 의지를 단적으로 표현한 듯 힘이 넘친다.

◇8일 해인사에서 봉행된 성철스님 사리탑 건립회향법회에는 해인총림 방장 법전스님을 비롯 청하·성수·일타·혜원스님 등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석했다.

팔각원당형→사각형→석종형 등 시대별 양식 변화
고달사지부도등 8개 '국보', 지증대사적조탑등 42개 '보물'

이외에도 보림사 보조선사창성탑(보물 157호), 실상사 증각대사응료탑(보물 38호) 등이 팔각원당형 부도들로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것들이다. 고려시대까지 석종형과 더불어 조성되던 팔각원당형은 고려말 조성됐던 수종사 부도를 최후로 자취를 감추게 된다.

고려시대로 넘어오면 팔각원당형이 아닌 평면을 사각으로 잡은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국보 101호)과 정토사 홍법국사실상탑(국보 102호)이 유명하다. 현묘탑은 탑신 가득 비천상 비룡상 외에도 옥개석에 불상이 조각되어 있는 듯 다양하고 정교한 조각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데 아라비아 양식이 엿보인다. 신륵사의 보제존자 부도와 같은 석종형은 인도 석탑의 복발형(覆鉢型)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석종형부도는 신라 말기에 나타나서 고려시대에 이르러 통도사 금산사 안심사 등을 비롯하여 개성 부근의 회암사와 불일사의 지공부도 등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특이한 양식의 전개없이 팔각원당형과 석종형 등이 혼합되어 이어진다. 팔각원당형으로 탑신부에 배흘림이 독특한 청룡사 보각국사정혜원융탑(국보 197호)은 옥개석에 귀꽃이 만발해 있다. 둥근 탑신에 운룡무늬가 가득 새겨진 회암사지부도(보물 388호), 후기 석조물로는 뛰어난 형식미를 자랑하는 연곡사 서부도(보물 154호) 등이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부도들이다.

이렇게 남아있는 부도 가운데 국보로 지정된 것은 고달사지부도, 연곡사 동부도 등을 포함해 8개이고 보물은 실상사 수철화상능가보월탑, 봉암사 지증대사적조탑 등 42개에 이른다. 세련된 선과 간결한 표현이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낸 성철스님의 부도가 석종형에 이은 현대의 새로운 양식으로 자리잡는 것은 아닐까.

황수영박사(전 국립중앙박물관장)는 현대적 감각이 가미된 성철스님 부도탑에 대해 "옛 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보다는 시대적 감각에 맞게 표현해 현대적 문화재로 재창조해낸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역사 속에서 보여졌던 우리 나라 사리탑의 종류가 다양했던 만큼 앞으로도 불교조각의 한분야로서 발전·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성철스님 사리탑 설계 **최재은씨**

"올곧은 수행정신-자비심 현대적 조형미로 표현"

"큰스님의 청빈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현대적 조형언어로 표현하려고 노력했어요."

성철스님 사리탑을 설계한 재일 설치미술가 최재은(45)씨는 스님의 올곧은 수행정신과 중생을 향한 자비심을 사리탑에 담아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모티브를 따온 사리탑은 두 개의 반구 위에 한 개의 구(球)를 얹어 3.5m 높이의 3층탑 모양을 하고 있다. 돌을 소재로 했으면서도 부드럽고 예민한 선을 중요시해 중량감을 느낄수 없는 것도 하나의 특징. 원과 구 그리고 사각형등 기하학적 무늬들이 서로 보완하거나 때로는 긴장을 이루며 전체적으로 안정된 조화감을 주고 있어 새로운 부도 개념을 보여주는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씨는 성철스님 사리탑 공간 자체를 '나를 찾아가는 선(禪)의 공간'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윤호 기자(ynlee@buddhapia.com)

죄 무게 달아 천당·지옥 결정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⑳

◇무위사 지장시왕도(부분). 1710년경.

죄의 측정

이승에서 죄를 짓거나 나쁜 일을 하면 죽어 지옥에 간다고 한다. 종교에서 이야기되는 지옥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데 이러한 것은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또 무거운 가를 일깨워 나쁜 짓을 그치고 착한 일을 널리 행하도록 하는데 그 참뜻이 있다. 지옥에 가면 염라대왕을 비롯 각 저승의 왕들이 생전에 지은 죄를 샅샅이 밝혀내는데 생전에 지은 죄가 업경대에 그대로 나타나거나 죄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 그 죄의 양상과 무게에 따른 벌을 받게된다.

왼쪽 그림은 무위사의 지장시왕도의 부분으로 죄인의 죄의 무게를 저울에 달고 있는 모습이다. 오른쪽은 천사 성 미카엘이 천상의 문앞에서 한 영혼을 놓고 악마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그림이다. 그 영혼의 착한 행실과 악한 행실을 저울바구니에 담아 무게를 다는 모습인데 어느쪽 무게가 더 나가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행이 결정된다. 학림(예천 법화암 주지)

◇산 미구엘 성당의 제단그림. 13세기. 스페인의 수리구 메를타 소장.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